

예멘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2. 5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4

I. 일반개황

면적	52.8만 km ²	G D P	381 억 달러(2011년)
인구	2,500만 명(2011년)	1 인 당 GDP	1,524 달러(2010년)
정치체제	공화제	통화단위	Yemeni riyal(YR)
대외정책	친아랍, 친미노선	환율(달러당)	213.80(2011년)

- 예멘은 한반도의 2.4배 넓이의 국토에 2,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.
-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매장량의 점진적 고갈로 인해 1인당 GDP가 1,524달러에 불과한 중동지역의 빈곤국임.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수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차례 외채 리스케줄링을 경험하였음.
- 1990년에 이슬람 국가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국가인 남예멘이 통일된 이후 북예멘 출신의 살레 대통령이 장기집권해왔으나 2011년 2월에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여 2012년 초에 정권이 교체되고 전 부통령인 하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.
- 과도정부 수립 후에도 친정부, 반정부 세력간의 갈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우며, 최근 남부지역에서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(AQAP)가 세력을 확장하며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 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 ^e
경제 성장률	3.5	3.2	3.8	6.2	-7.8
재정수지 / GDP	-5.9	-3.7	-8.5	-3.8	-8.7
소비자물가상승률	7.9	19.0	5.4	11.2	16.4

자료: IMF, EIU.

□ 2011년에 사회혼란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 기록

- 지속적인 산유량 감소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2007~09년 경제성장률은 3%대를 유지하였음.
- 2010년에 미국의 원조 증가와 신규 가스전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이 6.2%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2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영향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며 -7.8%로 급락하였음.
- 관련부서(new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er)에 따르면 소요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
□ 재정수지는 적자기조

-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석유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액(재정 수입의 70%)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적자기조를 지속하여 왔음.

-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데다 예멘 남부지역에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가 설립되어 국제적인 테러 근거지로 등장함에 따라 해외투자유입이 감소하며 재정 적자 폭이 GDP의 8.5%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음.
- 2010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며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.8%로 감소하였음.
- 2011년에는 정부가 반정부시위에 대한 유화책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, 확대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8.7%로 다시 확대되었음.

□ 주요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대외 여건변화에 민감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~06년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으나, 긴축통화정책을 통해 2007년에는 7%대로 하락하였음. 그러나 2008년에 국제 유가 및 식료품가격이 상승하자 다시 물가상승률이 19%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물가는 국제경기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.
 - 2009년에 세계 경기침체와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에 따라 5.4%로 하락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다시 11.2%로 상승하였음.
 - 2011년에는 소요사태로 인한 경기 불안정으로 해외투자유입이 중단되고 리알화가 약세를 보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%대로 급등하였음.
- 예멘은 금융제도의 미비로 정부가 이자율조정보다는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으며, 리알화 환율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였음

2. 경제 구조 ·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석유 및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

- 석유산업은 수출의 85%, 재정수입의 70%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큼. 그러나 신규 유전 탐사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매장량이 27억 배럴(2009년 기준)로 한정되어 있어 매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.

- 원유 생산량(b/d): 30.6만('08) → 28.7만('09) → 27.5만('10)

- 농업은 인구의 약 75%가 종사하는 주요산업이나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비료구입여력이 없어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 고질적인 물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- 농산물의 대부분은 카트(Qat)* 로 식량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
* 카트는 환각성을 가진 식물로 세계보건기구(WHO)에 의해 국제 유통이 금지되었으나, 예멘인들이 전통적으로 즐기는 기호품임. 환금성이 높아 곡물 대신 카트를 재배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.

- 정부는 일반소비세(General Sales Tax: GST)를 도입하며 세수를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□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인프라환경으로 생활고

- 예멘은 국민의 43%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빈국으로 인간개발지수(HDI)가 187개국 중 154위(2011년)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함.

- 공식실업률은 17%이나 비공식 실업률은 35~40%로 중동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, 시위로 인해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웠던 2011년 9월에는 52%로 역대 최고수준에 이르렀음.
- 대부분의 노동 인력이 미숙련 노동자로 농업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, 비 농업 부문 특히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여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움. 빠른 인구 성장률로(연 평균 3%) 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천연가스 생산개시로 추가 재정수입 확보

- 2005년 승인된 Yemen LNG(YLNG) 프로젝트(천연가스 매장량은 17.3조 ft³)에 따라 2009년에 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되어 향후 25년간 연 620만 톤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- 동 프로젝트에는 프랑스의 TOTAL(39.6%), 미국의 Hunt(17.2%), 예멘가스공사(16.7%), 예멘사회보장연금청(5%) 외에도 한국 사업주들이 다수 참여하였음.(한국가스공사 8.9%, 현대종합상사 3%, SK에너지 6.9%, 삼환기업 1.6%, 한국석유공사 1.1%)
- 천연가스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원유를 대체할 주요 재정수입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

다. 정책성과

□ 경제 다각화 추진 성과는 미미

- 2006년부터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천연가스, 농업/수산업 및 관광업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천연가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교통,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.

□ 석유수입 외 재정수입 확보 노력 중

- 2010년 발표된 중기개발계획은 재정수입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GDP의 8~10%를 차지하는 연료보조금을 철폐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함.

□ 예멘 신정부는 국가경제 재건을 위하여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간 산업 활성화를 추진중

- 2012년 6월부터 예멘 남동부의 Hadramaut에 제철공장을 시험가동하고, 이후 철강제품의 상업적 생산에 착수할 계획임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 ^e
경 상 수 지	-1,508	-1,251	-2,565	-1,468	-1,708
경 상 수 지 / G D P	-5.8	-4.0	-8.6	-3.9	-4.5
상 품 수 지	-441	-357	-2,013	-983	-674
수 출	7,050	8,977	5,855	7,718	7,588
수 입	-7,490	-9,334	-7,868	-8,701	-8,262
외 환 보 유 액	7,715	8,111	6,622	5,588	4,195
총 외 채 잔 액	6,089	6,258	6,356	6,578	6,613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3.6	20.2	21.2	20.1	17.4
D S R	5.0	3.8	4.0	3.1	3.3

자료: IMF, EIU.

□ 경상수지의 적자기조 지속

- 상품수지는 석유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여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.
-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유가 하락에 의한 수출액의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20억 달러까지 확대되며 경상수지 적자도 근래 최고치인 약 26억 달러를 기록한바 있음.
- 2010년에는 국제사회의 원조와 유가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15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음.
- 2011년 시위사태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로 서비스 수지가 크게 악화되며 경상수지 적자도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.

□ 외환보유액은 최근 급격히 감소

- 오일머니에 힘입어 2009년말에 81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은 원유 수출액 감소로 급격히 줄어들어 2011년 말에는 4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원유수출액(달러): 76억('08) → 42억('09) → 49억('10)
- 2011년에는 시위사태 장기화로 달러의 인출이 급증하고, 해외투자 유입이 중단되며 예멘 리얄화의 가치하락이 심화되자,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월 3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□ GDP대비 외채잔액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

- 외채규모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외채잔액의 비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.
- 총 외채잔액/GDP(%): 20.2('08) → 21.2('09) → 20.1('10) → 17.4('11)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1년 발생한 반정부시위로 극심한 혼란

- 튀니지와 이집트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예멘에서도 살레(Ali Abdullah Saleh) 전 대통령의 퇴진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2011년 2월부터 발생하였음.
- 살레는 1978년 쿠데타를 통해 북예멘 대통령이 되었고, 1990년 통일 예멘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총 34년동안 장기집권하였음. 이는 세계에서 리비아의 카다피 전 국가원수 다음으로 긴 집권기간임.
- 2011년 1월 예멘 의회가 대통령 3선금지 조항을 폐지하려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음.
- 살레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경진압하였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하시드(Hasid) 부족과의 교전이 반복되며 1년동안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음.
- 정부에 따르면 시위가 발생한 지난 1년간 2천여명이 사망하고, 2만 2천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짐.

□ 2012년 정권교체 후 과도정부 수립

- GCC의 중재로 살레 전 대통령이 2011년 11월에 조기선거안에 동의하고 2012년 1월에 출국하며 2월에 대선이 실시되었음.
-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일부 남부세력(Souther Mobility Movement)이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였으나, 60%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임.

- 단일후보로 출마한 하디(Abdel-Rabbuh Mansour Hadi) 전 부통령이 당선되어 2014년 대선때 까지 과도정부를 이끌 예정임.
- 하디 대통령은 1994년부터 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회당(General People's Congress: GPC)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18년간 예멘의 2인자 역할을 해 왔음.

□ 신 정권 수립 이후에도 친정부와 반정부 세력간 갈등 심화

- 수도 사나를 비롯한 예멘 곳곳에서는 여전히 반정부시위가 발생하고 있음. 시위참가자들은 전 살레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, 그의 측근인 하디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주장함.
- 국제사회의 타협안에 따라 살레는 퇴진 이후 형사상 면책을 보장받았음.
- 정권교체 이후 구 살레 정권하의 친정부세력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음.
- 금년 4월에는 하디대통령이 살레 전 대통령의 이복형제인 알 아흐마르 참모총장을 해임하자 일부 공군장교들이 수도인 사나의 공항을 포위하고 비행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항이 전면 폐쇄되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전통부족과 국제테러조직(AQAP)의 세력확장으로 치안불안 심화

- 예멘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통제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여 지방세력의 자치형태를 띠고 있음. 이슬람주의의 북부지역에서는 일부 부족들이 외국인을 납치하고 송유관을 공격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, 부족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- 예멘에는 1,700여개의 부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이들 부족은 중앙정부보다 소속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해서 예멘은 영토적 국가 정체성이 약함.

- 북부 사다(Sadaa)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수천 명의 시아파 반군은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적 소외에 대한 불만으로 수년간 정부와 교전을 벌이다 2010년 2월 휴전에 합의하였음.
- 남부지역은 과거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부족 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나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지부와 예멘 지부가 통합하여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(Al-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: AQAP)를 출범시키며 국제테러세력의 중심지로 등장하였음.
- AQAP는 2010년 1월 '아덴 아비안'군을 창설하여 조직을 체계화하고 예멘 주재 영국대사관 폭탄테러, 소포 폭탄 테러 등 다수의 테러사건을 저지르며 예멘 및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.
- 금년 4월 들어 예멘 정부군은 미군과 함께 전면적인 알카에다 소탕전에 나서 50여 명을 사살하였음. 5월 초 알카에다 측이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폭탄테러를 시도하자 미군이 무인 폭격기로 남부지역 알카에다의 거점을 공격하는 등 충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.

3. 국제 관계

□ 9.11사태 이후 대 테러전을 위해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

- 예멘은 2001년 9.11 테러 이후 관련 혐의자를 체포하는 등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적극 협조하며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.
- 미국은 2010년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며(전년 대비 2배 규모) 알카에다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□ GCC국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

- 예멘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원하며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예멘 노동자들의 사우디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.

- 사우디를 포함한 GCC 국가에서의 해외근로자 송금은 예멘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임.
- 그러나 2000년부터 사우디와의 국경협정 체결과 쿠웨이트 내 예멘 대사관 설립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였으며, 2006년 국제원조회의(donor conference)에서 GCC 국가들이 27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.
- 2010년에는 예멘의 정치, 경제적 개혁을 위하여 '예멘의 친구들'(Friend of Yemen) 모임이 결성되었으며, 2012년 5월 사우디에서 또다시 국제원조회의를 개최하여 예멘의 경제재건을 지원할 예정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외채부담 경감

- 과거 파리클럽 등을 통해 수차례 외채를 리스케줄링 하였고, 세계은행의 고채무빈국(HIPC)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았음.
 - 1996년과 1997년 파리클럽과의 두 차례의 채무재조정으로 60억 달러의 채무경감효과가 발생하였으며, 2001년에도 2.5억 달러의 외채 탕감 및 3.95억 달러의 리스케줄링에 합의하였음.
 - 정부는 IMF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빈곤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채무재조정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05년에는 자체 외채상환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HIPC 대상국가에서 제외되었음.
- IMF는 2010년 3억 6,980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차관(Extended Credit Facility: ECF)의 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성과 치안 문

<표 4> 한·예멘 교역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09	2010	2011	주요 품목
수 출	125,416	205,195	83,955	자동차, 인조장섬유직물, 농약 및 의약품
수 입	52,734	420,695	1,126,526	천연가스, 원유, 석유제품
합 계	178,150	625,890	1,210,481	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규모는 약 12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, 인조장섬유직물, 농약 및 의약품을 중심으로 약 8천 4백만 달러, 수입은 천연가스, 원유,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약 11억 2천 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해외직접투자(2011년 12월 말 누계, 총 투자 기준): 10건, 1,295,300천 달러
 - 우리나라의 대 예멘 직접투자는 중동지역 1위로 높은 수준이나(대부분이 LNG사업 등 원유,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) 2011년에는 시위사태의 영향으로 신규 설립된 법인이 없고 투자가 미미하였음.

V. 종합의견

-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지역의 빈국으로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수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음.
-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평균 4%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지속되는 산유량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,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201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.
- 시위 결과 34년간 집권해온 살레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디 전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혼란을 틈타 테러활동과 분리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정국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
-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거 여러 차례 채무 리스케줄링을 경험하였으나, D.S.R.이 3%로 매우 낮고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단기 외채 상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조사역 유나영(☎02-3779-5724)
E-mail: smilenayoung@koreaexim.go.kr